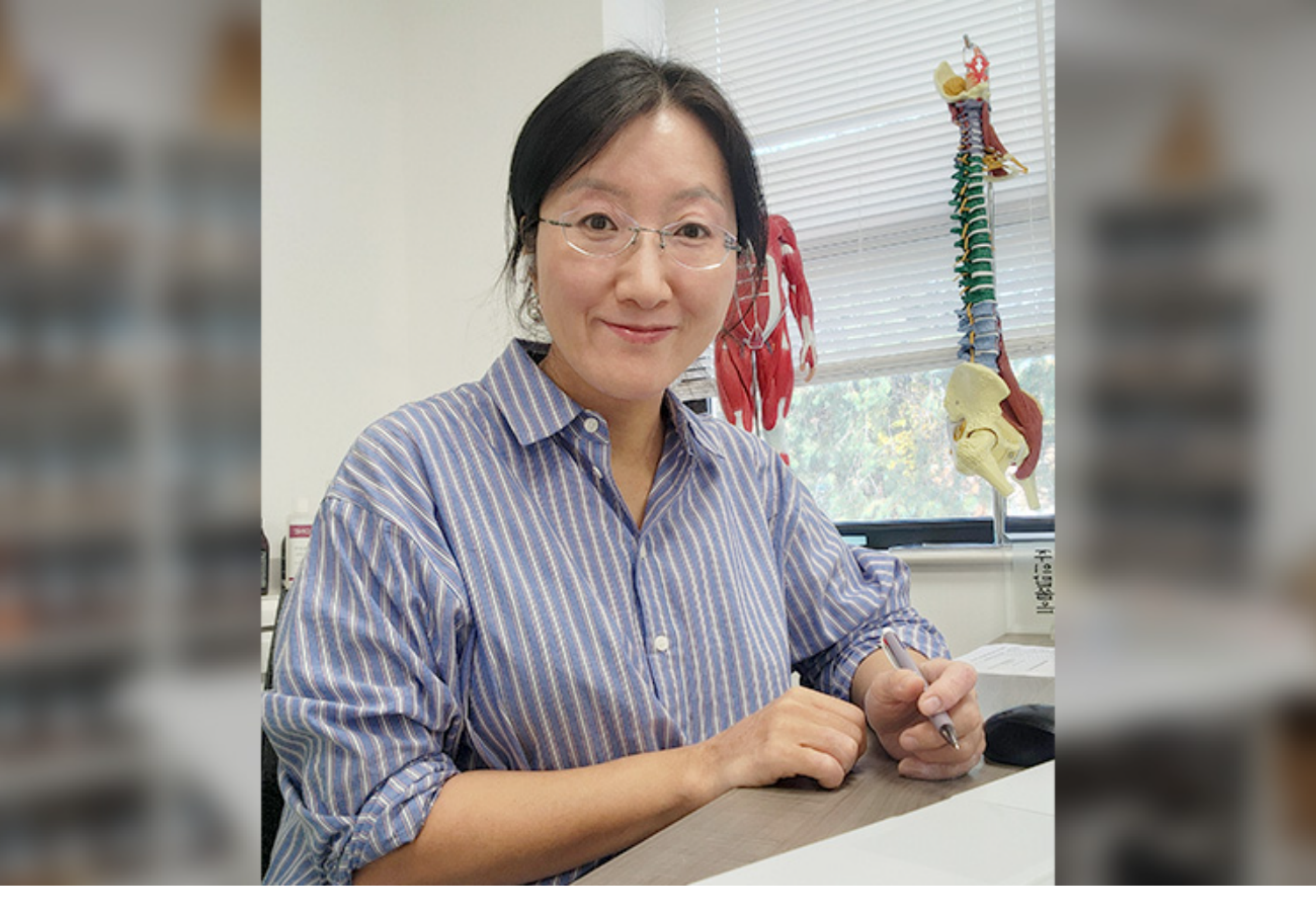

세계로

“미국 의료 시스템에 안정적 정착 목표”
한의약 교육 모델 개발, 통합진료 등 추진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대(VUIM) 엄정아 교수

“한의학이 미국 사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의료 모델로 인정받고, 제도적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한의학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이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엄정아 교수는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의약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다. 엄정아 교수의 여정은 한의학이 미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대(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 VUIM)에서 경혈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의학 글로벌 협력 디렉터를 맡고 있는 엄정아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육학을 부전공한 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해 의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후 16년간 한국의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한의학이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보편적인 의료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경희부부한의원’ 원장으로 오랜 기간 진료하셨는데, 미국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임상에서 보낸 16년은 제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환자들과의 경험을 쌓아가던 중, 자연스럽게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이 한국만의 전통의학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한 보편적인 의료 언어로 자리 잡는 과정에 직접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영문학을 전공해서 ‘언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갖추고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의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미국 버지니아통합의대(VUIM)는 어떤 곳인가요? 미국에서 전문 한의사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VUIM은 통합의학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의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의학, 의생명과학, 심신 운동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교육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다국어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습 병원에는 최신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습실과 연구실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한의학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한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한의학을 서양의 주류 의료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학에서 배출된 한의사들이 미국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명하고, 서양의학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의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버지니아통합의대 부속 한방병원 전경

기존 중의학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교과 모델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존의 중의학 중심 교육은 방대한 이론 지식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임상 적용과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교과 모델은 한국에서 쌓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경락과 경혈 이론을 서양의 해부학적 구조와 정밀하게 결합한 것으로, 실제 진료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의학 이론을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 신경, 근막 등과 연결해 설명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며 깊이 있는 이해를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한의학의 원리가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교육자로서 큰 보람과 함께,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버지니아통합의대 부속 한방병원 대기실

미국 VUIM에서 배출된 한의사들이 어떤 한의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가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다면적인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의학을 현대 통합의학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고, 환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며, 최신 의료 기술과 한의학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갖춘 한의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2단계)’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나요?

현재 미국 내 개원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한국형 한의의료기관 파일럿 모델을 설계하고 있으며, 현지 의료법과 보험 시스템에 맞춘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의학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국의 복잡한 의료법과 보험 시스템은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 개발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미국에서 개원할 ‘경희부부한의원’은 주로 통증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 관리 등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서양의학과 협력하는 통합진료 방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버지니아통합의대 부속 한방병원 진료실

후배 및 동료 한의사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네트워크 모임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시나요?

주로 미국 내 한의사 제도와 법률, 복잡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보험 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 환경은 주마다 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인 정보 교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한의학의 미국 진출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경험과 고충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담을 풀어놓으니 오가는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의사 제도 정착을 위한 자문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의료 법률, 면허제도 그리고 보험 청구 시스템 등 실무적인 내용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려면 실무 분야에서 적응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임상 경험과 미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현지 시스템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의학이 미국 사회에서 공공적 가치를 가진 의료 모델로 인정받고, 제도적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버지니아통합의대 활동을 기록한 벽면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미국 내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모든 역량을 쏟아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글로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의학 중심의 미국 통합의학 환경 속에 한의학의 독자적인 철학과 모델을 견고히 녹여내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지 의료 법규와 시스템 그리고 보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한의학을 통합의학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현지 문화와 의료 환경에 대한 깊은 존중과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한의학의 강점, 즉 인간 중심의 철학과 치료법이라는 색채를 잃지 않고 잘 유지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히 내놓을 만하다고 확신합니다. 용기와 열정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